

보도시점 2026. 6. 19.(금) 10:00 배포 2026. 6. 19.(금) 09:00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기업과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
- 공급망, AI 등 4대 중점 분야 중심의 '전략기획형 사업'을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까지 확대
- EDCF·MDB 등 실제 후속 투자와 연계비율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
- 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민간공모제 개편 등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정부는 2026. 6. 19.(금) 개최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K-지식 공유사업* 혁신방안」을 의결하였다.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번 혁신방안은 KSP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3년 단위 「2026-2028년 KSP 중기운용계획」이다. 지난 2004년 출범한 KSP는 지난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발굴부터 후속사업 연계, 성과 관리까지 더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등 범정부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함으로써 정부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연계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방안을 통해 그간 드러난 KSP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KSP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협력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선발대'로 육성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혁신을 추진한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 주요 내용(중점 혁신 과제) >

① 4대 중점 분야별로 국가별 '전략기획형 사업' 도입·확대

협력국 수요 대응 중심의 기존 사업 방식을 벗어나 국익 및 경제안보와 긴밀히 연계되는 공급망, 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 중심의 전략기획형 사업체제로 전환한다. 즉,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여 기획형 사업의 추진 방식을 체계화하고 현재 30% 내외에 불과한 동 유형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㉓전략적 중요성과 개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㉔4대 중점분야별 정책수요 연구를 통해 국가별 2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이 큰 핵심과제를 선별, ㉕이에 대해 제반 정책 설계 및 법령·제도 개선, 후속사업 사전기획 등을 KSP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한다.

② EDCF, 개발금융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 강화

KSP의 정책 자문 성과가 보고서 및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연결되는 후속 사업 연계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10% 미만 수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의 연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SP 양자 사업의 일정비율을 EDCF 후보사업을 발굴하는 전단계 사업으로 배정하고, MDB 대형 투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우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③ 민간 주도 프로젝트 기획·발굴 제도 도입

기업 등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제도화한다. 4대 중점 분야별로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새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사업발굴과 기획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현행 KSP 민간공모제를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적 효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KSP 민간제안제 개편 관련 상세 내용은 6.16일자 보도자료 참고)

④ 사업 관리 및 투명성 강화

정부는 AI 기반 통합 DB를 구축하여 국가 단위의 전략적 사업관리와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또한, 재외공관과의 협의 채널을 내실화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지 정책변동 등 위험요인을 수시로 파악·관리한다. 아울러 후속사업 연계, 협력국 변화 기여도, 우리 기업·기관 진출 등을 중심으로 핵심 성과지표(KPI)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과제별 정보공개 제도화, 공개의견 수렴 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의결된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중점 혁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KSP를 국익에 기여하는 보다 성과 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이고 파급력 있는 과제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협력 우선 순위와 연계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SP를 ‘지렛대’로 전략적 경제·정책협력 및 민간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국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경제협력 저변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개발정책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정희 (044-215-8760)
		담당자	사무관	조강훈 (jkh1915@korea.kr)
			사무관	최인철 (fepchoi67@korea.go.kr)

